



## 이유미의 자연에 빠지는 법 혹은 자연에 빠지게 하는 법



다른 도감에 비해 비교적 출판이 많이 된 분야가 식물도감이다. 하지만 막상 책을 펴면 필요한 정보가 충분한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진 텍스트는 둘째 치고 문자 텍스트만 봐도 기존의 도감 정보를 카피하는 수준에 머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이미 9년 전에 나온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나라 백 가지》라는 도감과 저자 이유미를 기억하는 것은 이런 틀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식물학자 이유미는 이 책을 통해 도감이 에세이처럼 재미를 주고 정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식물을 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꽃 사진만으로도 좋아하던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식물학적인 특성은 물론 문화적·역사적 사연이나 쓰임새 등 보다 폭넓은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 거죠.”

사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 훨씬 어렵다. 작업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정보가 궁금하며 필요한지 검토해, 정수를 뽑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박사 역시 최근에 어린이 도감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맨 처음 식물학자로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식물의 목록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실린 식물목록을 정리하고 나니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 교과서의 식물이 우리의 자연을 대변하지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례로 용설란의 경우가 그랬다. 수입종으로 예전엔 집에서 많이 키웠지만 요즘엔 어느 곳에서도 재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식물인데 버젓이 교과서의 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다. “아이들 눈높이라는 게 글자가 크고 그림이 단순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원하는 식물을 찾기 쉽도록 하고 꽃 색깔 또는 계절별로 배열하는 등 구성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이들은 도감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식물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캐릭터(주인공)를 등장시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도 고민되어야 하구요.”

일반인들을 위한 도감 역시 목적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진다. 실제로 산행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핸드북 도감 같은 경우 그 계절에 가장 눈에 잘 띄고 분포가 넓은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감에 희귀식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런 식물은 산행에서 만날 확률이 적다. 또 오히려 알리면 안 되는 것도 많다.

예전에 비해 우리나라 도감도 많은 발전을 했다. 기획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디자인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유럽과 같은 도감 선진국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 하지만 어린이용 도감에서 겪어야 하는 문제점들처럼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식물학자와 사진가가 구분되어야 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다. '사진만 잘 찍으면 이리저리한 책을 모아 내용을 발췌 정리해 도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문제라고 이유미 박사는 말한다.

“도감을 개인적인 작업으로 생각하고 단독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업하면 충실한 도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식물을 먼저 정하고 사진은 여러 사람이 모은다면 더 훌륭한 도감은 만들 수 있죠.”

도감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초보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도감이 있고, 전문가들이 볼 수 있게 모든 식물이 수록된 도감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감을 다 읽어야겠다는 욕심보다 곁에 두고 틈틈이 꺼내보는 자세다. 이 박사는 꼭 도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단계에 맞는 책을 찾을 것을 권한다.

“제가 쓴 책 중에 ‘숲으로 가는 길’, ‘우리나무 100가지’, ‘쉽게 찾는 나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처음 자연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숲으로 가는 길’을 들고 그냥 한번 가보는 거죠. 이름을 알려고 하기보다 길옆에 자라는 나무나 풀의 의미도 확인해 보면서요. 그러다가 식물이 궁금해지면 ‘쉽게 찾는 나무’ 한 권을 골라 주머니에 가볍게 넣고 떠나는 거예요. 궁금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식물이란 것이, 나무란 것이 좋아질 때 ‘우리나무 100가지’를 한 권 사서 천천히 읽어보면 그때 정말 식물에 푹 빠지게 될 거예요.”

이유미 실장은 요즘 양치식물에 푹 빠져있다. 지난 해 광릉 수목원에 생물표본관이 생기면서 표본연구실 실장을 맡고부터다. 불품없고 연구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식물학자로서는 반듯이 넘어야 할 산이다. **이유미**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도감을 쓰는 사람들

윤무부\_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저서\_《한국의 새소리》《한국의 조류 생태도감》  
《강원의 자연》《최신 한국조류명집》《한국의 텃새》

송기열\_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공식 기록촬영 지명 작가로 활동. 현재 송기열 사진연구소 운영/저서\_《한국의 야생화》《사진촬영 길라잡이》《야생화 일기》《나무이야기-보고 즐기고 느끼는 도감01》

김정환\_ 고려곤충연구소 소장. 환경운동연합 '녹색생명운동' 지도 위원  
저서\_《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나비 백 가지》《비무장 지대의 곤충》《한국의 잠자리·메뚜기·사마귀·대벌레》《한국의 거미: 생태도감》

윤주복\_ 초등학교 교사로 25년간 재직. 현재 식물 생태 사진을 찍으며 활동  
저서\_《식물관찰도감》《우리 꽃 이야기》《나무 이야기》

이용남\_ 공룡학·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저서\_《공룡대탐험》

박석근\_ 한국식물원연구소 소장, (사)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사무처장  
저서\_《원예치료》《원시인이 꼭 알아야 할 용어 384가지》

김준문\_ 해양학교를 운영, 갯벌사랑동호회 사무장/저서\_《갯벌탐사 도감》  
명정구\_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저서\_《한국어명집》《한국해산어류도감》  
《우리바다 어류도감》

윤창호\_ 한국어류학회 이사, 서남대학교 이학부 생물학과 조교수/  
저서\_《한국어류검색도감》

김주필\_ 동국대 부설 한국거미연구소 소장/저서\_《원색 한국거미도감》  
권오길\_ 강원대 생물학과 교수/저서\_《꿈꾸는 달팽이》《인체기행》《생물의 죽살이》

